

한국어 교육학 사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THE ENCYCLOPEDIA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는 1993년 서울대학교
부설 연구소로 출발하여 (한)국어교육의 제반 이론
개발과 연구, 연수 및 자료의 수집, 개발 등을 통해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교육학 사전

The Encyclopedia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차례

간행사	4
편찬 기구 및 집필자	6
한국어교육학 사전의 체계 및 지침	8
1. 언어학	15
2. 습득론	159
3. 연구 방법론	269
4. 발음 교육	313
5. 어휘 교육	425
6. 문법 교육	581
7. 의미·화용 교육	715
8. 표기·문자/한국어사	773
9. 교육과정	843
10. 교재	887
11. 교수법	937
12. 평가	993
13. 기능 교육	1053
14. 교육 정책	1183
15. 문화 교육	1237
16. 다문화 교육	1289
17. 문학 교육	1319
찾아보기	1369
한글 색인	1370
영문 색인	1406
인명 색인	1431

간행사

2014년 한글날을 앞두고 ‘한국어교육학 사전’이 출간되었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조선어 통역관을 기르던 중국과 일본에서, 근대 개화기에는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어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재외 동포 거주지에서, 1950년대 이후에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와 재외국민교육연구소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동안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 주지 못하다가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어교육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2014년 현재 한국어교육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많은 대학에 개설된 한국어과 또는 한국어 과정, 재외 동포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한글)학교, 전 세계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종학당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 기관, 이주 노동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한국어 교육 기관 등이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어교육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도약을 담보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학원의 학위 논문이나 관련 학회에 발표된 연구 논문들은 이런 한국어교육의 질적 성장의 성과를 어느 정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저희 연구팀은 ‘한국어교육학 사전’ 편찬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3년 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이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한국어교육학 사전’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사전은 기본적으로 한국어교육 연구자, 교사, 대학원생을 대상 독자로 하는

전문 용어 사전으로 기획하였으며, 총 17개 주제 영역에 걸친 1,001개의 표제어에 대해 246분의 집필진이 참여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전의 출간은 이제 겨우 반세기를 넘긴 한국어교육학계의 역량을 총집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사전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육학계의 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어교육학 사전’의 출간을 기점으로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어교육학의 위상도 더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한국어교육학 사전’의 출간을 즈음하여 저희 연구팀에 재정적 지원을 해 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하면 신생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학 분야, 그중에서도 사전 편찬과 같은 기초적인 연구에 대해 지원하는 일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 연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팀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끝으로 이 사전의 자문 위원회, 편찬 위원회, 기초 연구 위원회, 기초 실무 연구 위원회, 집필 위원회, 교정·교열 위원회 등으로 참여해서 좋은 사전이 나올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한국어교육학계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 덕분에 이 사전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한국어교육학 사전’이 출간될 수 있을 때까지 기초적인 연구와 편찬 실무를 담당해 준 공동 연구원, 보조 연구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9월 26일

한국어교육학 사전 편찬 연구 책임자 민현식, 윤여탁
공동 연구원 구본관, 민병곤, 최은규
전임 연구원 이수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소장 고정희

편찬 기구 및 집필자

편찬 기구

책임 연구원: 민현식, 윤여탁

공동 연구원: 구본관, 민병곤, 최은규

전임 연구원: 이수미

보조 연구원: 김영미, 김정은, 김혜민, 김혜진, 신범숙, 유민애, 이소연, 이슬비

자문 위원회: 권재일, 박갑수, 백봉자, 성기철, 신현숙, 우한용, 이동재

편찬 위원회: 고정희, 구본관, 김병선, 김정숙, 김종철, 김중섭, 민병곤, 민현식, 박창원,
송향근, 윤대석, 윤여탁, 윤희원, 이삼형, 이해영, 조항록, 최은규, 최정순, 허용

기초 연구 위원회: 강남옥, 강승혜, 강현화, 김인규, 김정우, 김호정, 문금현, 방성원, 심상민,
안경화, 오지혜, 이관규, 이미혜, 이수미, 이지영, 정호성, 조수진, 조형일,
지현숙, 진대연

기초 실무 연구 위원회: 김정은, 김혜진, 박민신, 박혜진, 신필여, 신현단, 유민애, 이성준,
이소연, 이슬비, 이지수, 이희진, 최주희, 홍은실

교정·교열 위원회: 강경민, 구본관, 김영미, 김은진, 김정은, 김지혜, 김풀잎, 김현아, 김혜민,
김혜진, 민병곤, 민현식, 박정하, 서승아, 신범숙, 신필여, 여윤희, 유민애,
유서영, 유하나, 윤여탁, 윤자경, 이소연, 이수미, 이슬비, 이진주, 최은규

집필 위원회:

강경민	구민지	권재일	김민애	김억조	김재욱
강남옥	구본관	기준성	김병일	김영규	김정남
강순행	구정화	김가람	김봉순	김영미	김정숙
강승혜	구현정	김경령	김서형	김영순	김정우
강현화	권미미	김대희	김선정	김영주	김정은
강혜옥	권병희	김명광	김성숙	김유정	김정화
고정희	권성미	김미선	김성희	김은아	김종수
곽지영	권순희	김미옥	김수정(독협대)	김은애	김종철
곽셀 퇴르귀쥬	권오현	김미형	김수정(부산외대)	김인규	김주관

김주원	박선옥	신성철	윤평현	이지영(한중연)	조진수
김중섭	박선희	신윤경	응웬 티 후옹 센	이해영	조하연
김지혜	박성태	신종호	이관규	이효인	조항록
김진완	박소영	신주철	이관식	이효정	조형일
김평원	박용익	신필여	이금희	이희정	조희연
김한철	박윤경	신현단	이남인	이희진	주세형
김현기	박재현	신현숙	이만기	임동훈	주재우
김현주	박지영	심상민	이미향	임미은	증천부
김혜영(듀크대)	박철우	심혜령	이병규	임수경	지현숙
김혜영(서울대)	박해일	싯티니 탐마차이	이병민	임지룡	진대연
김혜정	박혜영	안경화	이병식	임채훈	진문이
김혜진(서울대)	박혜진	안종량	이삼형	장봉석	최권진
김혜진(서울대)	방성원	양명희	이선웅	장윤희	최용기
김호정	배재원	연재훈	이성만	장은아	최운호
남 빅토르	배주채	오광근	이성범	장향실	최운곤
남승호	백봉자	오수학	이성준	전미현	최은경
남윤진	백순근	오정미	이소연	전태현	최은규
남지영	백인선	오지혜	이수미	정끝별	최재현
니르자 사마즈달	사라 벤자민	오판진	이슬비	정다운	최정순
니콜라 프라스키니	서경숙	왕단	이영숙	정대현	최주희
란효하	서혁	왕혜숙	이영식	정명숙	최지훈
모경환	설규주	우인혜	이완기	정미라	최진아
모운숙	성비락	우한용	이유미	정미혜	최형용
모줄 따지아나	성상환	우형식	이은하	정선화	폴리 룡
목정수	성은실	유민애	이은희	정수진	하승현
문금현	손영현	유영미	이재원	정영근	한문희
민병곤	송경숙	유해준	이정복	정인아	한재영
민원정	송향근	유현조	이정훈	정호성	허용
민현식	송현주	육효창	이정희	정희창	현윤호
박기영	신동일	윤대석	이준호	조수경	홍은실
박민신	신명선	윤여탁	이지수	조수진	홍혜준
박석준	신범숙	윤영	이지영(상명대)	조원형	황선엽

한국어교육학 사전의 체계 및 지침

I. 사전의 성격

본 사전은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및 독자성을 확립하고, 한국어교육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물론 한국어를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항목을 제공할 목적으로 고안된 개론서의 성격을 지닌 주제별 전문 용어 사전이다.

1. 주제 영역 선정

본 사전은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아우르는 전문 용어 사전으로서 일반 언어학, 응용 언어학, 한국어학, 한국어 교수 학습, 한국 문화와 문학 교육 등의 대영역 안에서 한국어교육학의 교육 내용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17개의 주제 영역을 설정하였다.

2. 주제 영역 배열

본 사전의 주제 영역은 언어학, 습득론, 연구 방법론, 발음 교육, 어휘 교육, 문법 교육, 의미·화용 교육, 표기·문자/한국어사, 교육과정, 교재, 교수법, 평가, 기능 교육, 교육 정책, 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 문학 교육으로 대영역의 순서에 따라 나누었다. 또한 대영역 안에서는 음운에서 문장 및 담화 차원으로의 확대, 문화 일반에서 다문화, 문학으로 특수화된다는 논리에 의거하여 주제 영역을 배열하였다.

3. 표제어 선정

본 사전의 표제어는 한국어교육학의 관점에서 주요한 개념어를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언어학 일반에서는 한국어교육학과 관련되는 구조주의 언어학, 생성주의 언어학, 인지주의 언어학, 사회 언어학, 텍스트 언어학, 담화, 컴퓨터 언어학, 말뭉치 언어학 등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육의 실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학습자 모어별 발음 지도, 말하기 지도, 듣기 지도, 읽기 활동, 쓰기 활동, 교육과정의 개발 단계, 국외의 한국어 교육 현황’ 등도 표제어에 포함하여 총 1,001 개의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4. 표제어 배열

본 사전 표제어의 배열은 주제 영역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 구조가 완성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일반론에서 실재론으로 순서화하였다. 또한 주제 영역별 표제어 수와 표제어 배열 순서는 한국어교육학 사전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와 전문가 초점 면담을 통해 발견된 유의미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본 사전에서는 2수준(사전 본문에 사용된 기호: ■)을 중심으로 상의어를 1수준, 하의어를 3수준으로 위계화하여 표제어를 배열하였다.

II. 사전 기술 지침

1. 본 사전의 기술에 사용된 기호는 다음과 같다.

① 1수준: 1.1.

② 2수준: ■

③ 3수준: □

④ 저자: 〈 〉

⑤ 다른 번역 용어: =

⑥ 관련어: →

⑦ 참고문헌: [참고문헌]

2. 본 사전의 원고 분량은 원칙적으로 1수준과 2수준은 A4 1장 내외(원고지 7~8장), 3수준은 A4 반 장 내외(원고지 4~5장)로 하였다. 그러나 표제어의 특성상 각 수준별로 안배된 기술 분량에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 분량의 원칙에 예외를 두어 사전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3. 본 사전 기술의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표제어

가. 표제어는 한글 표기만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어와 영어는 본문의 정의문에서 표기한다.

예 ■ 전신 반응 교수법

전신 반응 교수법(全身反應教授法, total physical response: TPR)은...

나. 두 개 이상의 주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된 표제어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각 주제 영역의 관점에서 그 기술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주제 영역에서 모두 표제어로 선정한다.
- 각 주제 영역의 관점에서 필요한 표제어이나 기술 내용이 유사하여 각 주제 영역의 독립된 표제어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통 표제어를 기호(☞)와 함께 제시하여 기술된 주제 영역을 참고하도록 한다.

② 본문: 본문의 기술 내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처음	•정의문
•중간	•주제별 표제어의 특성상 상이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 - 용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학자별, 연구별 등) - 연구사 - 역사적 변천(통시적 관점) - 장점과 단점 - 표제어에 대한 예시
•끝	•주제별 표제어의 특성상 상이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 - 전망 - 문제점 및 한계 - 해결해야 할 과제 -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연구 동향 및 전망

③ 각 수준별 기술 내용의 핵심

- 1수준: 기술의 핵심은 용어의 개념과 특징 및 통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위치이다.
- 2수준: 기술의 핵심은 용어 자체의 핵심적 개념 및 한국어 예시이다.
이때 3수준이 후속으로 존재할 경우의 예시는 3수준에서 제시 가능하다.
- 3수준: 기술의 핵심은 개념 정의 및 예시 제시이다.
- 모든 표제어의 내용은 한국어교육과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기술한다.

④ 문장

가. 문장 내에서 나열의 연결 어미를 지양한다.

예) 애서는 큰 움직임부터 시작하여 작은 움직임으로, 단순한 지시에서 복잡한 지시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는데, 학습자는(×) 교사의 지시에 물리적으로 반응함으로 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확한 발화의 의미를 습득하게 된다. → ...제안한다. 학습자는 ...

나. 문장의 시제는 현재 시제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 연구의 흐름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설명하는 기술에서는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가 있을 수 있다.

예 6.6. 시제

시제(時制, tense)는 어떠한 사건, 상황, 상태의 시간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가리킨다.

전통적으로 시제는 자연 시간과 언어 시제의 동질성에 입각하여 '과거:현재:미래'라는 삼분 구조 안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다. '-(으)ㄴ/는/(으)ㄹ 것이다, -(으)ㄴ 수 있다' 등의 주관적 문체는 지양한다.

⑤ 정의문

가. 정의문에서 표제어는 한자 및 영어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 표제어의 영어는 소문자로, 약어는 대문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전신 반응 교수법(全身反應教授法, total physical response: TPR)

예외 1)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 등으로 인해 표제어 일부에 대응되는 한자가 없으면 한자 병기를 생략한다.

예) 주체 높임

예외 2) 영어가 전문 용어가 된 경우에는 한자 병기를 생략한다.

예) 브레인스토밍, 스캐닝

나. 정의문은 집필자의 주관에 배제된 사실적 정의를 원칙으로 하며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구성한다.

다. 정의문 다음 문장은 단락으로 구분한다.

라. 정의문은 집필자의 말로 기술하되 특정 이론가의 정의만을 따르지 않는다.

마. 모든 표제어는 정의 기술을 원칙으로 하지만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표제어는 이론의 경향성이나 특징으로 기술을 시작할 수 있다.

예 11.2. 교수법의 변천

지금까지 확인된 역사적 문헌의 고찰에 따르면 한국어교육의 기원은 신라 시대 또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한국어교육이 시작되던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해당 시대의 요구에 맞는 여러 가지 교수법들이 채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예문

본문에서 사용하는 예문은 (1), (2), (3)의 번호를 사용하며, 그 하위 예문은 ㄱ, ㄴ, ㄷ...으로 한다. 예문은 본문에서 한 줄 띄우고 제시한다.

⑦ 인용문

가. 직접 인용을 지양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큰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전신 반응 교수법은...”

나. 내각주를 지양한다.

⑧ 표 및 그림

가. 표 안의 내용은 중간 정렬을 원칙으로 하며, 표 안에 내용이 없을 경우 ‘—’로 통일한다. 단, 발음 교육은 예외로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다.

나.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나 그림 위에 제시하고, 출처는 본문과 참고문헌에 제시한다.

예

〈표준어의 모음 체계〉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이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i	ɥ	—	ɯ
중모음		e	ɰ	ɨ	ɯ
저모음		a		ɳ	

다. 표에서 제시된 범례는 다음과 같이 () 안에 표시한다.

예

집단	무선 할당	사전 검사	처치	사후 검사
실험	R	O사전-실험	X	O사후-실험
통제	R	O사전-통제	—	O사후-통제

(R=무선할당, O=검사(observation), X=처치(treatment), --=처치 없음)

⑨ 집필자

본문 문장 끝의 ‘〈 〉’ 안에 집필자명을 제시한다.

⑩ 다른 번역 용어

가. 〈집필자〉 다음 줄에 = 기호를 표시한 후 기술한다.

예 □ 응집성

= 결속 구조, 일관성, 통일성

나. =란 표제어의 다른 번역 용어를 말한다.

다. 표제어가 학자에 따라 여러 용어로 사용될 경우 모두 나열할 것을 권장한다.

⑪ 관련어

가. 다른 번역 용어 다음 줄에 → 기호를 표시하고 연관되는 표제어를 제시한다.

나. 관련어는 타 주제 영역의 표제어만 제시한다.

예 기능 교육의 ‘장르 중심 접근법’의 관련어는 언어학의 ‘체계 기능 언어학’이다.

‘응결성’의 관련어로 동일 영역에 있는 ‘응집성’은 제시하지 않는다.

⑫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

모든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을 따른다. 단, 전문 용어로서 붙여 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용어나 붙여 써야 하나 띄어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용어는 예외로 한다.

예 한국어교육, 국어교육, 교육과정, 상호작용, 참고문헌, 안은 문장, 이어진 문장...

⑬ 참고문헌

가. 참고문헌은 표제어의 이해를 돕는 핵심 서적으로 정하며 최대 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나. 저자 3명까지 이름을 표시하고 3명을 초과하면 ‘외’ 또는 ‘et al.’로 표기한다.

예 3인:

- 김경근·성열관·백경선(2008), 재외 비정규 한글학교용 표준 교육과정 체제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Ghadessy, M., Henry, A. & Roseberry, R. L. (Eds.) (2001), *Small corpus studies and ELT: Theory and practic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예 3인 초과:

- 한재영 외(2008), 한국어 문법 교육, 태학사.
- Aronson, E. et al. (1978), *The jigsaw classroom*, SAGE Publications.

다. 역음, 편저 등은 원래 책에 제시된 것을 따른다.

예

- 안경화(2008), 교수 학습의 연구사와 변천사, 민현식 외 편,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 한국비판사회학회 역음(2011),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 Faerch, C. & Kasper, G. (1983), Plans and strategies in foreign language communication, In C. Faerch. & G. Kasper. (Eds.), *Strategies in interlanguage communication*, pp. 22~60, Longman.
- Sinclair, J. (Ed.) (2004), *How to use corpora in language teach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단, 독일어 참고문헌의 경우 (Ed.)를 (Hrsg.)로 표기한다.
- Hartmann, P. (1964), Text, Texte, Klasse von Texten, In W. A. Koch. (Hrsg.), *Strukturelle Textanalyse*, Hildesheim.

라. 번역서는 원서의 정보에 이어서 역자, 연도, 제목, 출판사를 적는다.

예

- Beaugrande, R. A. & Dressler, W. U.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김태옥·이현호 역, 1991, 담화·텍스트 언어학 입문, 양영각.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권오량·김영숙·한문섭 공역, 2004, 원리에 의한 교수: 언어 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Freud, S. (1901), *Zur Psychopathologie des Alltagslebens*, A. A. Brill. (Trans.), 2012, *Psychopathology of everyday life*, Courier Dover Publications.

마. 출판사의 도시(지역명)는 표기하지 않는다.

예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Oxford University Press

바. 외국 학위 논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예 Adams, R. J. (1973), *Building a foundation for evaluation of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and continuing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Name of Institution.

- 미간행 학위 논문은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예 Adams, R. J. (1973), *Building a foundation for evaluation of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and continuing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ame of Institution.

사.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했을 경우 형식은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 한국 사이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2014년 6월 1일 가져옴, <http://www.law.go.kr>

- 외국 사이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 전자 형태 도서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예 O'Keefe, E. (1953), *Egoism & the crisis in Western values*, Retrieved June 12, 2014, from <http://www.onlineoriginals.com/showitem.asp?itemID=135>

• 저널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예 Kortepeter, M. G. & Parker, G. W. (1999), Potential biological weapons threats, *Emerging Infectious Disease* 5-4, Retrieved January 20, 2003, from <http://www.cdc.gov/ncidodEID/vol5no4/kortepeter.htm>

학이론 1

1

언어학

- 1.1. 구조주의 언어학
- 1.2. 생성주의 언어학
- 1.3. 체계 기능 언어학
- 1.4. 인지 언어학
- 1.5. 사회 언어학
- 1.6. 심리 언어학
- 1.7. 신경 언어학
- 1.8. 담화
- 1.9. 텍스트 언어학
- 1.10. 말뭉치 언어학
- 1.11. 컴퓨터 언어학

1. 언어학

개관.....18

1.1. 구조주의 언어학.....20

- 체계.....21
- 공시태와 통시태.....22
- 랑그와 파롤.....23
-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25
- 기표와 기의.....26

1.2. 생성주의 언어학.....28

-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29
- 변형 생성 문법.....31
 - 보편 문법.....32
 - 언어 습득 장치.....33
- 확대 표준 이론.....34
- 지배 결속 이론.....35
- 최소주의 이론.....37
- 결합가 문법.....38
 - 논항.....40

1.3. 체계 기능 언어학.....42

1.4. 인지 언어학.....43

- 범주화.....46
 - 고전적 범주화 이론.....47
 - 원형 이론.....48
 - 기본 층위 범주.....49
- 인지 모형.....50
 - 틀.....51
 - 영역.....53

□ 영상 도식.....54

□ 정신 공간.....55

□ 이상적 인지 모형.....56

□ 개념적 혼성.....57

■ 해석.....59

□ 원근법.....61

□ 주의와 현저성.....62

□ 판단과 비교.....63

□ 구성과 게슈탈트.....63

■ 개념적 은유.....64

□ 일차적 은유.....66

□ 구조적 은유.....67

□ 지향적 은유.....68

□ 존재론적 은유.....69

■ 개념적 환유.....70

■ 도상성.....71

■ 문법 모형.....73

□ 인지 문법.....74

□ 구문 문법.....76

□ 어휘 문법.....77

1.5. 사회 언어학.....78

■ 언어 현상.....80

□ 단일 언어 사용.....81

□ 양층 언어 상황.....83

□ 피진과 크리올.....84

□ 언어 교체와 언어 유지.....85

■ 언어 변이.....86

□ 방언.....87

□ 지역.....88

□ 계층.....89

□ 성별.....90

□ 연령.....92

■ 언어 사용역.....93

■ 의사소통의 민족지학.....95

□ 언어 공동체.....96

□ SPEAKING 모형.....98

■ 경어법.....99

1.6. 심리 언어학.....101

■ 언어 이해.....102

□ 단어 인식.....103

□ 문장 처리.....104

□ 담화 이해.....106

■ 언어 산출.....107

□ 산출 단계.....108

□ 말실수.....109

□ 통사 구조적 접화.....111

1.7. 신경 언어학.....112

1.8. 담화.....113

■ 담화 분석.....115

□ 대화 이동.....116

□ 담화 표지.....117

□ 비판적 담화 분석.....118

■ 담화 유형.....119

■ 대화 분석.....121

□ 인접쌍.....123

□ 말 차례.....123

□ 청자 발화.....125

□ 수정.....125

1.9. 텍스트 언어학.....126

■ 텍스트성.....128

□ 응집성.....129

□ 응결성.....131

■ 텍스트 구조.....132

□ 미시 구조.....133

□ 거시 구조.....134

□ 최상위 구조.....136

■ 텍스트 기능.....137

■ 텍스트 유형.....138

1.10. 말뭉치 언어학.....140

■ 주석 말뭉치.....141

■ 학습자 말뭉치.....143

■ 문맥 색인.....144

■ 유형과 토큰.....145

■ 어휘 빈도.....146

■ 어휘 풍부성.....147

■ 언어.....148

1.11. 컴퓨터 언어학.....149

■ 전자사전 편찬.....150

■ 형태소 분석.....151

■ 구문 분석.....152

■ 단어 중의성 해소.....153

■ N-그램 언어 모형.....155

■ 자연 언어와 형식 언어.....156

1. 언어학

한국어를 제1 언어인 모어로 교육하는 것은 국어교육이라 하고 한국어를 제2 언어나 외국어로 교육하는 것은 한국어교육이라 하여 구분한다. 이러한 언어 교육 영역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것이 언어학이다.

언어학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처럼 개별 언어를 연구하는 개별 언어학과 이들 개별 언어의 보편적 공통 특질을 연구하는 일반 언어학(*general linguistics*)으로 나뉜다. 따라서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모든 현상의 원리나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언어의 단위 요소인 음운, 단어, 문장, 담화, 텍스트 등의 현상, 구조, 생성, 기능에 관하여 원리나 법칙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이론 언어학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어휘론, 통사론, 의미론, 텍스트 언어학과 같은 분야가 이론 언어학의 하위 분야로 있다. 이론 언어학은 순수 언어학(*pure linguistics*) 또는 미시 언어학(*micro-linguistics*)으로도 부른다.

이론 언어학의 성과 위에서 언어를 다양한 관점이나 차원으로 응용하여 연구하는 분야를 응용 언어학(*applied linguistics*) 또는 거시 언어학(*macro-linguistics*)이라 부른다. 영어권에서 응용 언어학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1931년 로카르트(L. Lockhart)의 저서 *Word economy: A study in applied linguistics*가 처음이다. 1933년 블룸필드(L. Bloomfield)도 명저 *Language*의 끝 장(章)인 *Application and outlook*에서 응용 언어학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 후 1941년에 구조주의 언어학의 대가 파이크(K. Pike)와 프리스(C. Fries)가 미국 최초로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을 위한 전문 연구소인 ELI(English Language Institute)를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 설립한 것은 현대 응용 언어학의 역사에 획기적 사건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과 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였으며 응용 언어학 사상 최초의 전문 학술지인 *Language Learning: A Quarterly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를 1948년에 창간하였는데 이것은 1993년부터 *A Journal of Research in Language Studies*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응용 언어학이라는 용어는 이론 언어학의 성과를 모어나 외국어 교육에 적용해 교육과정, 교재, 교수법, 평가 등의 연구를 총괄하는 개념의 좁은 의미로 쓰임으로써 ‘응용 언어학=언어 교육’으로 인식해 왔고, 일부에서는 응용 언어학을 비영어권 화자에 대한 영어교육(Teaching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TESOL)과 동등하게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언어를 개인의 심리, 뇌와 인지, 사회 환경, 전산 통계 처리 등의 관점으로 연구하면서 심리 언어학, 인지 언어학, 사회 언어학, 전산 언어학, 말뭉치 언어학, 법률 언어학 등 다양한 응용 언어학 분야들이 나타났다.

이 사전에서 이론 언어학은 1.1. 구조주의 언어학, 1.2. 생성주의 언어학, 1.3. 체계 기능 언어학만을 다루고 구체적인 이론 언어학의 내용은 다음 영역에서 기술하도록 하였다. 넓은 의미의 응용 언어학은 주로 이곳 ‘언어학’에서 1.4. 인지 언어학, 1.5. 사회 언어학, 1.6. 심리 언어학, 1.7. 신경 언어학, 1.8. 담화, 1.9. 텍스트 언어학, 1.10. 말뭉치 언어학, 1.11. 컴퓨터 언어학까지 다루며 뒤에 이어지는 ‘습득론’에서도 다룬다. 그 밖에 다양한 응용 언어학 분야들이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어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크지 않아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다. <민현식>

1.1. 구조주의 언어학

구조주의 언어학(構造主義言語學, structural linguistics)은 19세기 중반 소쉬르(F. Saussure)의 언어학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언어의 구성 요소를 구분하고 분류하여 정의하는 연구로서 추상적인 언어를 기호의 체계로 구조화하여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소쉬르는 언어를 관념을 표현하는 기호 체계로 보았다. 이들이 표시되는 형식은 기표(記標, 시니피앙, signifiant)가 되고 이의 대상이나 의미가 되는 것은 기의(記意, 시니피에, signifié)가 된다. 이때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나무'라는 실체를 나타내는 개념, 즉 기의는 그것의 기표로 쓰이는 소리인 [namul]와는 아무런 내적 관계가 없다. 이는 '나무'의 개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소리가 언어마다 다르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언어 기호를 대상이 되는 사물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언어 체계 안에서 다른 기호들과 맺는 관계에 따라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호에 대한 연구는 통시적(diachronic)인 관점은 물론 공시적(synchronic)인 관점에서 각 요소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결국 구조주의 언어학은 관찰되는 언어를 분리, 분류, 분석, 분절하여 구체적인 언어 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강조한다.

소쉬르가 도입하고 블룸필드(L. Bloomfield)가 주창한 구조주의는 구체적인 언어 자료 조사에 역점을 두면서 논리적으로는 19세기 후반의 신문법 학자들이 이를 따랐다. 196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 동안 활발히 연구된 구조주의는 이후 기술 언어학(記術言語學, descriptive linguistics)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기술 언어학은 구조주의를 배경으로 삼아 1930년대 투르베츠코이(N. S. Trubetzkoy), 야콥슨(R. Jakobson) 등을 중심으로 한 프라그 학파(Prague School)와 엘름슬레우(L. Hjelmslev), 브뢰날(V. Brøndal)에서 출발한 코펜하겐 학파(Copenhagen School) 그리고 같은 시기의 유럽의 언어학과는 유리(遊離)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언어 연구의 방법론으로 출발한 구조주의는 언어는 물론 철학, 문화, 사회, 교육 등의 관련 학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구조주의는 19세기와 20세기의 전환기에 지식의 체계화,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그 관심 영역의 확대, 학자들의 공동 연구 참여, 다른 학문 분야와의 방법론에 대한 상호 공유를 가능하게 한 이론이다.

한국어교육에서는 구조주의의 개념을 문법 구조를 활용하는 교육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 청각 구두식 교수법, 직접 교수법 등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이전의 언어 교수법은 언어의 구조에 대한 인식을 교육 단위의 기본 원리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이들 교수법의 근간에는 어휘와 문법 요소를 분리하여 각각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때의 구조주의는 행동주의와 맞물려 구성 요소의 반복

학습이라는 교육 방법을 형성하였다. 이 방법은 1970년대 이후의 언어 교육이 학습자와 실제 언어 사용 상황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차츰 퇴조하게 된다. 물론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육이라고 해서 어휘와 문법의 구조적 인식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에서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인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 인식의 원리와 이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형일>

= 구조 언어학

→ 문법 번역식 교수법, 청각 구두식 교수법, 직접 교수법

[참고문헌]

- 김방한(1999), 언어학 논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방한·신익성·이현복(1983), 일반 언어학, 형설출판사.
- Crane, L., Yeager, E. & Whitman, R. L. (1981),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이기동·신현숙 역, 1994, 언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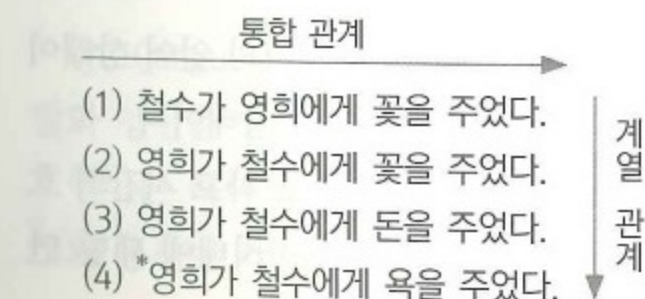
■ 체계

체계(體系, system)는 언어를 구성하는 단위들이 일정한 원리를 따라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총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체계란 어떤 원리에 따라 통일적으로 조직된 지식의 전체를 말하는데, 언어를 체계로 보는 것은 언어가 여러 가지 요소를 단순하고 무질서하게 묶은 집합체가 아니라 일정한 원리에 따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 언어학 강의(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를 보면 소쉬르(F. Saussure)는 랑그(langue)를 독립적인 개체들의 집합이 아닌 상호 연관된 어휘와 문법, 음운적 요소들의 체계로 이해하고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체스 말과 기차를 이해하려고 할 때 각각의 개체가 아니라 체스 게임 혹은 열차 망의 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과 유사하다. 소쉬르는 언어의 체계를 계열 관계(系列關係, paradigmatic relation)와 통합 관계(統合關係, syntagmatic relation)로 나누는데 계열 관계는 품사 및 하위 단어 분류와 관련이 있고 통합 관계는 통사·의미적 결속 관계와 관련이 있다.

언어 기호는 이처럼 체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독립적으로 파악되는 기표와 기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요소들도 체계 안의 관계로 이해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이들 중에서 예문 (1)과 예문 (2)는 구성 요소가 모두 같다. 하지만 예문 (1)에서 주어와 부사어의 자리에 쓰인 ‘철수’와 ‘영희’가 예문 (2)에서는 ‘영희’와 ‘철수’로 바뀌면서 문장의 의미도 바뀌었다. 질료(質料)는 같은데 결합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바뀐 것이다. 통합 관계는 이처럼 통사·의미적 결속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예문 (3)에서는 앞의 예문들에 나오는 ‘꽃’이 ‘돈’이라는 단어로 교체되면서 문장의 의미가 바뀌었다. 이처럼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교체 가능한 어휘들 간의 관계를 계열 관계라고 부른다. 예문 (4)는 의미 수준에서 비문이다. 이는 한국어에서는 ‘옥’을 ‘꽃’이나 ‘돈’처럼 직접적으로 주는 행위에 포함되는 형식으로 쓰지 않기 때문이다.

체계는 문장 수준이 아닌 음운의 차원에서 적용된다. 한국어에서는 음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등이 삼항 대립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계열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음절을 구성할 때 서로 대립하는 동시에 같은 자리에 출현할 수 없다. 이처럼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는 관계는 체계(system) 또는 구조(structure)를 이루게 된다.

언어 기호의 체계에 대한 이해는 한국어교육에서도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교육 내용이자 수단이다. 초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자모 체계가 자음은 삼항 대립으로, 모음은 양성파 음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음절을 구성할 때에 초성과 중성 그리고 종성이 어울려 쓰이는 제자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한국어의 단위별 체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교수 학습할 때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법 교육에서는 교육의 단위가 되는 문형에 결합 가능한 어휘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어휘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문장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사는 학습의 단위를 마련할 때 언어 체계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여야 하며 그 이해에 근거하여 학습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형일>

[참고문헌]

- 김기혁 외(2010), 언어 이야기, 경진.
- 김방한(1995), 언어학의 이해, 민음사.
- Robins, R. H. (1997), *A short history of linguistics*, 강범모 역, 2007, 언어학의 역사: 스토아 학파로부터 촌스키까지, 한국문화사.

■ 공시태와 통시태

공시태(共時態, synchronie)는 변화의 정지를 가정한 어떤 특정한 시기의 언어 상태이며 통시태(通時態, diachronie)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의 상태이다.

일정 시기의 정적인 언어 상태를 기술하는 것을 공시태 언어학이라고 하고 시간의 흐름 안에서 언어의 변화를 기술하는 것을 통시태 언어학이라고 한다. 공시태에 대한 연

구와 통시태에 대한 연구는 각각 공시론과 통시론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공시론이란 일정 시기의 언어를 기능 작용의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인데 이때의 연구 대상은 정태적인 체계가 된다. 공시적 연구에서는 언어의 진화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의 연구는 자료를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이에 비하여 통시론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에 이르는 계기적 연속을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통시적 언어 연구에서는 언어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언어를 진화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로 간주한다.

소쉬르(F. Saussure)도 과학의 정태적 국면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공시적인 것으로, 진화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통시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동일한 대상과 관련되어 있으나 서로 다른 두 질서에 속하는 현상의 대립과 교차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공시언어학(synchronic linguistics)과 통시언어학(diachronic linguistics)을 구분하였다.

공시태와 통시태의 구분은 현대 한국어 연구와 한국어사 연구를 구분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의 ‘줄임말에 대한 연구’나 ‘어휘 간의 의미 관계에 관한 연구’ 등은 공시적인 연구가 되고, 중세 한국어에서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쓰이던 표현 ‘어리다’의 의미가 현대 국어에서 ‘나이가 적거나 수준이 낮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통시적인 연구가 된다.

언어 변화에 대한 통시적 기술은 공시적 기술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공시태는 동시성의 축에 놓이며 통시태는 계기성의 축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동시태의 언어에 대한 연구가 곧 통시적인 언어 연구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는 언어 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때 중요한 인식을 제공한다. 한 시대의 언어 교육 자료는 그 시대의 시대적 합의를 거쳐 정리된 결과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형태가 공존하는 언어 표현 중에서 합의되고 정제된 언어 자료를 질료(質料)로 하는 통시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한 언어가 변화하는 모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고찰할 수 있다. <조형일>

[참고문헌]

- 김기혁 외(2010), 언어 이야기, 경진.
- Crane, L., Yeager, E. & Whitman, R. L. (1981),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이기동·신현숙 역, 1994, 언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 Saussure, F. (1972),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최승언 역, 1991, 일반 언어학 강의, 민음사.

■ 랑그와 파롤

랑그(langue)는 언어의 추상적인 체계를 말하며 파롤(parole)은 그 언어의 개별적인 발화 양상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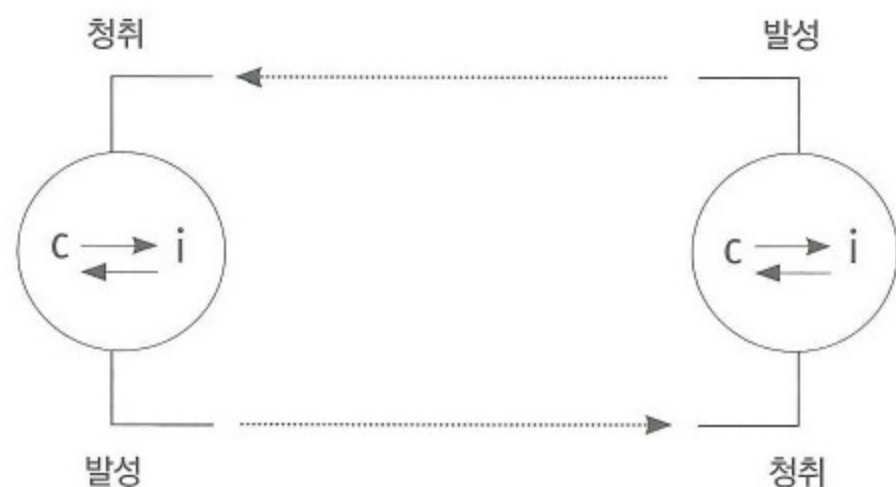
언어는 하나의 체계로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만 그와 동시에 각 개인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적인 체계로도 볼 수 있다. <일반 언어

학 강의(*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를 보면 소쉬르(F. Saussure)는 전자를 랑그, 후자를 파롤이라고 부르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파롤보다 공동의 사회적 체계로서의 언어, 즉 랑그를 언어학의 대상으로 보았다.

랑그는 언어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에 대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소쉬르는 발음되는 음절을 청각적 인상으로 보았는데 단순한 음만으로는 진정한 언어 활동이 될 수 없다고 파악했다. 언어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과 사회의 의미, 기능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랑그는 언어 활동의 사회적 산물인 동시에 개개인이 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집단이 채택한 필요 약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쉬르는 랑그가 언어 활동의 단위를 이룬다고 보았다.

대화자 A와 B는 상호 화언(話言, parole)의 순환을 재구성하면서 언어 활동을 수행한다. 이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행위인데 이때 A의 머릿속에서 형성된 개념은 일종의 의식 현상으로서 언어 기호의 표상 또는 이를 표현하는 수단인 청각 영상에 결합되어 있다. 소쉬르는 하나의 개념이 주어지면 그 개념이 머릿속에서 청각 영상을 불러일으킨다고 가정했다. 이는 머릿속에서 구성되는 개념을 추상화한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때의 머릿속 개념, 즉 청각 영상이 발성 기관을 자극하여 음파로 변환되고 B에게 전달되는 대화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소쉬르의 화언(話言) 순환 도형〉



(c = 개념 i = 청각 영상)

소쉬르는 이 순환을 입으로부터 귀까지 흐르는 음파의 외적 부분과 나머지 내적 부분, 정신적 부분과 비정신적 부분, 능동적 부분과 수동적 부분으로 나눈다. 이 가운데 비정신적 부분이란 머릿속을 제외한 외부 기관에서 제어되는 물리적인 부분과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리적인 현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A에서 B로 진행되는 모든 것은 능동적으로, B의 귀에서부터 머릿속까지 가는 모든 것은 수동적으로 이해한다. 결국 머릿속에 위치한 정신적인 부분 안에서 능동적인 것(c → i)으로의 이행은 수행

적이고 수동적인 것(i → c)은 모두 수용적이다. 이때 수행적인 면은 결코 집단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언어 활동에 관계하는 언중에게는 어느 정도 평균치의 수행과 수용이 기대될 수 있다. 하지만 소쉬르는 언어를 화자의 기능이 아니라 개인이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산물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수행은 언제나 개인적이고 개인은 언제나 수행의 주체가 된다. 소쉬르는 이것을 파롤이라 부른다.

랑그와 파롤은 언어 기원과 개별 언어 간의 유사성에 중점을 두어 연구했던 그 시대의 언어학적 흐름을 전환시킨 중대한 개념이다. 이 구분에 따라 언어를 기호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언어의 체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개념의 구분은 이후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수행하는 언어 체계와 기호에 대한 연구에 초석을 제공하는 한편 촘스키(N. Chomsky)의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과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 언어 수행(language performance) 등의 개념이 발아하는데 자양분이 되었다.

〈조형일〉

[참고문헌]

- 강범모(2010), 언어: 풀어 쓴 언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 김성도(1999), 로고스에서 뮈토스까지: 소쉬르 사상의 새로운 지평, 한길사.
- Saussure, F. (1972),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최승언 역, 1991, 일반 언어학 강의, 민음사.

■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

계열 관계(系列關係, paradigmatic relation)는 발화 연쇄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 간의 대치 가능한 관계를 의미하며 통합 관계(統合關係, syntagmatic relation)는 발화 연쇄의 선적인 배열 관계를 의미한다.

소쉬르(F. Saussure) 이래로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언어 표현을 발화 연속상의 통합 관계와 요소 또는 범주들의 대립 체계 속에서 이해되는 계열 관계로 구분해 왔다. 계열 관계는 품사와 하위 단어 부류와 관련되고 통합 관계는 통사·의미적 결속 관계와 관련된다.

(1) 경민이가 혜진에게 꽃을 주었다.

이 문장은 ‘경민’, ‘혜진’, ‘꽃’이라는 명사와 ‘가’, ‘에게’, ‘을’이라는 조사 그리고 ‘주다’라는 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한국어의 특성상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로 결합되면서 각각 조사에 의해서 자릿값이 실현된다. ‘경민’, ‘혜진’, ‘꽃’은 ‘주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논항이 되는데 이들은 서술어를 중심으로 통합 관계를 이루고 있다.

(2) 혜진이가 경민이에게 꽃을 주었다.

예문 (2)와 앞의 예문 (1)은 구성 요소가 모두 같다. 하지만 예문 (1)에서 주어로 기능하는 ‘경민’과 부사어로 기능하는 ‘혜진’이 예문 (2)에서는 각각 부사어와 주어로 그 자